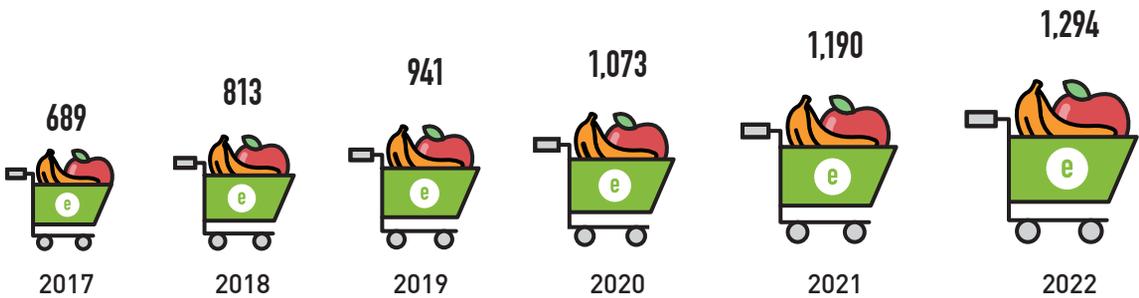


가치상승 중인 식품 E-Commerce 시장

폴란드사무소

식품 및 음료 온라인 매출 전망

(단위 : 백만 PLN)



온라인 매장의 광목할 만한 성장

• 폴란드는 2018년 3월부터 일요일 상점 영업 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대형유통매장을 포함하여 중소형 마켓, 24시간 편의점까지도 매주 일요일은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제외를 받는 온라인 매장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식품판매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객의 절반 이상이 식품 구매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과일, 채소, 빵, 유제품 등의 식품을 주로 구매한다고 한다. 식품 인터넷 소매업의 가치는 2017년 690백만PLN에 이르며, 향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유통매장, 홈 딜리버리 서비스 시행

• 온라인시장 성장세에 따라 식품 오프라인매장들도 앞다투어 e-commerce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형유통매장인 까르푸(Carrefour), 비에드롱카(Biedronka), 자브카(Zabka) 등 폴란드 내 유통점유율 5위내 있는 기업들이 모두 자사 사이트 또는 택배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온라인 주문방식은 한국 대형 유통매장의 온라인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온라인채널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가격할인, 첫 구매 무료배송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쿨로맷’서비스를 이용해 신선식품을 수령중인 소비자

**유럽 최초 식료품 배달 무인보관함,
쿨로맷(Coolomat)**

- 하절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신선농산물 배달을 혁신적으로 가능하게 할 ‘쿨로맷(Coolomat)’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해 화제다. 쿨로맷은 식료품용 무인배달 보관함으로 -20℃부터 10℃까지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냉동실·냉장실·일반실 등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 신선농산물 보관에 탁월하다.
- 특히 일반 딜리버리 서비스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쿨로맷은 24시간 언제

든지 소비자가 편한 시간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

- 쿨로맷은 바르샤바 시내에만 약 3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이퍼마켓인 피오토르파베우(Piotr i Paweł), 오상(Auchan) 등 5개의 유통매장이 동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까르푸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편의성을 갖춘 온라인마켓으로 접근 필요

- 폴란드 온라인시장의 고속 성장을 감안할 때, 폴란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수출업체들은 오프라인 마켓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의 진출까지 함께 접근해 볼 만하다. 온라인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은 아시아식품 등 수입식품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이 적은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Coolomat처럼 편의성을 갖춘 배송 시스템이나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어필한다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선식품 무인배달 보관서비스 ‘쿨로맷’ 광고

출처 : www.pb.pl, www.coolomat.com, Euromonitor <2017 Internet Retailing - Poland>